

강진딸기 말레이시아 수출 협약 체결

강진군 생산 딸기 생과 및 가공품 수출 현지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우수한 농산물 심혈 기울여 농업인 소득 이어나도록 노력 당부”



강진딸기가 올해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에 수출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지난 24일 강진딸기 생과와 가공품 등의 말레이시아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고마미지영농법인 및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윤호현 소장과 김재용 고마미지 대표, 시우 밍 치앙 하이난엔터프라이즈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강진딸기의 말레이시아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전년도부터 생산된 딸기의 일부인 3톤 정도를 말레이

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 수출했고, 지난 4월부터 말레이시아내 업체와 수출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가는 등 시장 개척 방안 모색과 구체적인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재용 고마미지영농법인 대표는 “이번 수출을 통해 강진군 농특산물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고 향후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윤호현 소장은 “참여 업체가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수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마미지 영농법인은 수출계약에 따라 딸기 생과가 생산되지 않는 여름철에는 냉동딸기와 딸기 건조 칩 등을 수출할 계획이다.

강진=김명일 기자

영암군, 감염병 예방 “함께 지켜요”

건강한 여름나기 당부

영암군은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름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 보건소는 여름철에 빈발하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안전한 음식물 섭취가 중요한 만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익혀먹을 것을 강조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할 것을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야외 활동 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피부노출 후 풀숲에 들어가지 않기 기피제 사용하기, 휴식 시 돛자리 사용하기, 특히 귀가 즉시 목욕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보건소 감염병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불 자주마시기, 한낮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홀로 어르신 등 고령의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 쉼터.

그늘막 설치·도로 물뿌리기 등 목포시 폭염 피해 예방 총력전

목포시가 폭염 대비·대응 테스트(PT)팀을 운영하는 등 더위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약자 보호를 위해 경로당 187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늘막 설치와 도로 물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무더위쉼터에는 7~8월 2개월간 냉방비 20만원을 지원하고,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노인돌봄서비스 전담요원 64명을 투입해 독거노인 1725명에 대한 주 1회 직접 방문, 주 2~3회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문간호팀(11명)을 통해서도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어르신 등에 대한 기초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매일 전화 또는 방문 등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목포역과 목포여객터미널 등 9개소에 그늘막 27개소를 설치했으며, 복사열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일 100km 구간의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많은 농축산 농가에는 문자나 방송 등을 통해 안전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비상급수를 위한 장비와 기반시설을 사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 남발되는 지역 축제 감축한다

일선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사성 축제로 세금이 축난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승옥 강진군수가 지역축제를 대폭 감축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1년간 개최하는 축제는 총 105개다. 여기

중 강진 K-POP 콘서트는 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입했으나 판매액은 1100만원에 그쳤고, 9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세계모란페스티벌의 수익금은 900만원에 불과했다.

역사성이 있는 강진정치축제는 사업비 11억2000만원을 들여 수익금 6억9500만원을 올려 그나마 선전했다.

강진군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할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다보니 축제를 남발했고 결국 세금을 낭비했다”며 “지역이 보유한 특수한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그리고 경제성을 따져 축제행사를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김명일 기자

강진군 지난해 12개 축제, 예산 32억원 투입 역사·경제성 따져 비효율적 축제 폐지 방침

에 하루짜리 행사성 축제까지 더하면 총 169개로 늘어났다.

축제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순천으로 13개로 나타났다. 이어 강진이 9개, 영광·장성·화순이 각각 6개, 광양·장흥·고흥·보성이 각각 5개 순으로 많다. 축제행사가 가장 적은 곳은 무안과

미중물 성격의 축제는 필요하지만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하게 축제행사를 남발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해 총 12개의 축제를 개최했다. 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2억3100만원이다.

담양군, ‘2018 담양군 공예명인’ 찾는다

담양군이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담양군 공예명인을 선정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인 20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1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종

사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장 또는 (사)담양군공예인협회사장의 추천을 받아 군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내달 20일까지 이뤄지며, 선정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전문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명 이내로 선정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보유정도, 임상실적, 전시활동, 공예문화 발전 공헌도, 공예산업화와 사회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농산물 사게 하는 세일즈 스킬 교육생 모집 내달 10일까지 선착순

곡성군은 내달 10일까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산물 사게 하는 세일즈 스킬 교육’ 참가자를 2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가들의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소비자에게 내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스피치 교육으로써,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5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보이스 기초이론 및 리딩 실기, 내면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 찾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 PT, 자신의 농장과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즉흥 스피치 훈련을 시켜 최종적으로 세일즈 PT테스트와 영상을 촬영하여 농가에 맞는 스킬을 컨설팅해주는 교육으로 농가가 농장과 농산물을 홍보하여 판매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에 안내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727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호산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